

발간사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가 화목하며 친구를 믿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옛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공부로 여겼습니다. 글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인간이 되는 공부였던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조선 중기에 정치가와 학자로서 활약했던 율곡(栗谷) 이이(李瑀) 선생도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격몽요결(擊蒙要訣)』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른바 학문이란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부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젊은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학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내 몸이 바로 서야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지나치게 입시공부만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매달리다보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이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린이 교육을 위해 사용했던 여러 책에서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은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올바르게 자라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약간의 한자와 한문의 기초를 다루어 교과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교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바르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겠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개인 각자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나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빕니다.

2015년 11월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국제적 확산 사업단장 최영진

머리말

이 책은 옛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공부의 기초교재로 많이 읽었던 『계몽편』과 『동몽선습』과 『사자소학』과 『격몽요결』 가운데서 오늘날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골라서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다시 썼어요.

옛날과 오늘날은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고 또 시대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옛 조상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따르거나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것이 다 쓸모없는 케케묵은 골동품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거기에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통하는 삶의 지혜와 도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당장 시험에 필요한 공부에만 열중해요. 경쟁이 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 속담에 ‘급하다고 비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급해도 살아가는 지혜와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훗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미숙한 행동 때문에 힘들고 곤란하여 후회하는 일이 꼭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지혜와 도리를 알려주려고 썼어요. 물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 바른 인성과 최소한의 기초 한자와 한문을 익히도록 배려하였어요.

우선 바른 인성을 위해서는 교과를 통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한자는 읽기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낱말 익히기 위주로 하였으며, 한문은 간단한 문장을 익히게 했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관련된 옛 이야기와 해설을 덧붙였지요. 물론 학교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등장하는 내용을 머릿속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익힌다면, 즐거움도 커지고 공부의 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라 믿어요.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2015년 11월

이종란 씀